| 현불 논단 |

‘Contact’ 연등회, 다시 불 밝히는 희망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고려 태조 ‘훈요십조’ 중 연등회 언급
국가적 행사 자리잡은 점 알 수 있어

전 시대 걸친 백성들의 마음 등불
2020년 유네스코 등재로 세계 인정

올해 대규모 연등회 행사 기획 기대
코로나 지친 국민에 위안 · 평화 주길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 첫 번째와 여섯 번째는 대략 이렇게 정리된다.

“국가의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이며, 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

열 가지 유훈(十訓) 중 불교와 관련된 조항이 두 가지나 있다는 것은 고려 태조의 사상 배경과 그 당시 정책의 요체가 불교에 집약돼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연등회는 부처님오신날인 음력 4월 8일에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거행되는 불교 행사로, 삼국시대로 그 연원이 올라갈 정도로 1000년 동안 계승된 불교 의례다.

연등회는 신라 진흥왕 12년(551년)에 팔관회의 개설과 함께 시작됐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경문왕 6년(866년)과 진성여왕 4년(890년)에 ‘황룡사에 가서 연등을 보았다(看燈)’라는 기록이 전해져 오랜 시간 한반도에서 거행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 시작된 국가적인 불교행사는 고려시대로 이어지면서 융성해졌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로 오면서 쇠퇴하지만, 그래도 민간에서는 등을 밝히며 연등회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갔다. 백성들의 마음의 등불이었기에 근현대기에서도 명맥은 이어졌다. 현대 연등행사의 시작은 1955년 조계사 부근에서 제등행렬이었으며, 1975년 부처님오신날이 국가공휴일로 제정되면서 연등회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됐다.

2012년 연등회는 그 역사성을 인정받아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불자와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인이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창궐한 코로나19라는 역병으로 인해 연등회는 암초를 만났다. 2020~2021년 불교계는 봉축행사의 백미인 연등회를 취소했다. 1000여 년 역사 속에서 연등회 행사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계엄령으로 행렬이 진행이 진행되지 못한 이후 40년 만이었다. 1961년 4.19 계엄령과 1970년 계엄 상황 등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연등회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은 있지만, 자발적인 취소 결정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지난 2년동안 흥겨운 연희단의 군무도, 서울 밤거리를 수놓는 화려한 장엄등의 행렬도, 회향한마당의 꽃비도 만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대승불교의 가치가 당시 불교계의 결정에는 담겨있었다.

그렇게 두 번의 연등회가 취소 · 축소됐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됐으며 정부 역시 ‘일상회복’을 강조하면서 ‘리오프닝(re-opening)’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회 분위기는 불교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등회보존회는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올해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 일정을 발표했다. 올해 연등회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준하는 규모의 대면 행사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도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면서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시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에 초점을 삼고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부산 연등회도 3km 거리의 연등행렬을 준비중이다.

올해 연등회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다. 3년 만에 다시 재개하는 연등회가 지친 국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등불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社說

성파 종정예하 추대에 부쳐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3월 30일 2000만 불자의 마음을 받아 추대됐다. 조계종 최고 정신적 지도자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으로 중봉 성파 대종사는 불법(佛法)을 밝힌다.

새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그동안 생활과 문화, 선을 함께 잇는 수행가풍을 펼쳐왔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로의 변화를 스스로 상징하는 스님이다. 추대법회에서 준비된 법문을 걷어치우고 대중들에게 설법한 중봉 성파 대종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낸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시름을 앓고 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자비의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인자한 모습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중봉 성파 대종사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자대비보살의 화현이다. 형형한 눈빛과 함께 우레와 같은 사자후로 수행자의 결기를 드러내는 모습은 선의 종장 그 자체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그러했지만 조계종 제15대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여느 선지식과 다른 면이 있다. 스스로 낮추길 꺼리지 않는 중봉 성파 대종사는 흙을 만지고 종이를 만지며 평생을 정진해왔다.

환한 얼굴로 남을 대하고, 사랑과 칭찬의 말로 위로하며, 따뜻한 눈길과 언행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 또 스스로 하심하여 보람된 일을 하며 상석을 즐기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무재칠시를 평생 행해온 중봉 성파 대종사. 이제 중생의 평안을 위해 나선 중봉 성파 대종사의 또 다른 정진이 국민들과 지구촌 세계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B톡, 불자경제공동체 첫 발 ‘기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3월 31일 불자 전용 메신저 B톡을 출시하고 불자를 하나로 모으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을 선언했다.

불자기업인 비드테크와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은지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비톡은 메신저 기능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웹과 앱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게 하고, 멤버십을 디지털화, 각종 할인 혜택과 소통 가능으로 활동을 이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불자장터를 비롯한 상부상조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불자들이 불자기업을 활용하면, 기업 측에서는 고객이 확보되며, 불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인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적정보 공유 등도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불교계는 이웃종교에 비하여 공동체 형성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이면에는 경제적으로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심이 강한 부산의 경우 신협 등을 통해 불자들의 경제활동을 서로 지원하여 경제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다시 불심 강화의 선순환 고리로 만들고 있다. 이웃종교계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면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경제는 발전하고 종교는 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주문받고 있다. 불자들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교세 확장과 외호강화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비톡 출시는 단순히 메신저 출시가 아닌 새로운 디지털 경제 네트워크 구축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부처님 재세시 신흥기업가들이 인도 계급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상이었던 불교에 귀의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강력한 후원자로 나섰다. 이를 선례로 새로운 불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봄바람’나고 싶어라

도봉산(道峰山)을 오른다. 만장봉(萬丈峰), 자운봉(慈雲峰), 선인봉(仙人峰), 도(道)의 봉우리들이 솟아오른 산을 오른다. 가파른 산길을 걷고 걷는다. 온몸의 구멍마다 오액(五液)이 흐르고 숨결이 거칠다.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른다. 바람이 불어온다. 봄바람이 거친 숨결을 토닥이며 흩어진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딱히 머무른 바 없는 바람. 탐진치(貪瞋癡)를 해체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 한 바람이다.

아, 나도 바람이 되고 싶어라. 새바람 높새바람 하늬바람이 되고 싶어라. 산바람을 타고 우주를 나들이하는 풍류체(風流體)가 되고 싶어라.

술 잘 먹고 노래 잘 부르는 한량이 풍류객인가. 아서라, 신라의 고운(孤雲) 최치원은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가 있으니 일컬어 풍류(風流)라 한다. 그 풍류의 연원은 선사(仙史)에 상세히 적혀있다”라고 기록했다.

고운이 쓴 〈난랑비서〉의 난랑(鸞郎)이란 무엇일까? 난랑의 난(鸞)은 봉황(鳳凰)의 이름이다. 봉황은 실제로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상상 속 높은 경지에서 노니는 영조(靈鳥)다. 또한 봉황의 봉(鳳) 자는 바람 풍(風)과 새 조(鳥)의 합성어가 아닌가. 봉황은 풍조(風鳥), 바람새를 일컫는다. 고운은 인간이 신령한 산바람(嵐)을 타고 영원한 우주 차원으로 선화(仙化)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현묘지도(玄妙之道)를 풍류도(風流道)라 했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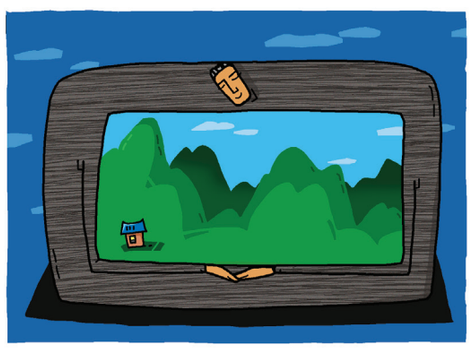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증산(甑山)은 “세상에 성(姓)으로 풍(風)씨가 먼저 태어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 다만 풍신(風身), 풍채(風采), 풍골(風骨) 등 체상의 호칭으로만 남았다”라고 했다. 풍씨를 인간 근원의 성으로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풍류의 멋은 풍월을 농하는 것이 아니라 신묘한 바람을 타고 생사(生死)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무애한 숨길이다. 풍류체는 지구에 화려한 무덤을 남기고 피안으로 떠나지 않는다. 고운은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고 가야산에서 산바람을 타고 흔적 없이 우화(羽化)했다. 지구라는 좁은 마당에서 자유로운 바람을 타고 광대무변한 하늘로 영화(靈化)했다. 단군 역시 하늘을 개천한 후 시체를 남기지 않고 승천했다.

땅과 하늘을 넘나드는 풍류체는 형체가 없으면서도 무한한 형체를 갖춘 무애자재(無礙自在)한 모습으로 성차원(聖次元)을 소요한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마음에 새겨 바람처럼 흘러가는 절대자유한 지경이런가.

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부는 도봉산에서 바람나고 싶어라.

〈작가〉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탕)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9년10월31일(목요일)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 방영
■ 2022년2월16일(수요일) KBS1 저녁6시 내고향 지리산 함양 해발1000m 자생「마가목」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탕)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밀림사
• 주 지 : 지웅 (속명 : 강재규)
• 주 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하림1길 12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대한불교 능인종 총무원장 법하